전국비구니회 CPE센터, 영적돌봄가 첫 배출

7월 4일 스님 6명 · 재가자 2명 수료

1월 개소 이래 첫 성과
9월 4일까지 2기 모집
승려연수교육 프로그램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비구니회는 7월 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올 1월 개소한 전국비구니회 CPE센터가 첫 수료생 8명을 배출했다. 명상과 심리, 임상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병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만큼, 향후 병원포교 일선에서 불교계 영적돌봄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 영적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양성기관인 CPE센터의 역할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7월 4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1기 수료생은 스님 6명과 재가자 2명.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강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총 16주 4개월 과정의 교육을 완료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본각 스님은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CPE센터에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병원 포교의 원력이 꽃피워지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CPE센터장 지인 스님도 "간화선이 깨침의 수행이라면 CPE는 업성을 팔정도로 변화시키는 발효수행"이라며 "영적 치유와 돌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보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인 스님은 CPE센터 첫 수료생을 배출한데 대한 소회가 남달랐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회원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CPE센터가 개소한 이후, 처음 수료생을 배출하니 감동스럽다"며 "앞으로도 영적돌봄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병원포교를 통해 부처님 자비실천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CPE센터는 병환으로 고통 받은 이들은 위해 효과적인 영적돌봄을 제공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정신적 환자 돌봄가 교육, 혹은 임상보디사트바 교육으로 일컬어지며, 임상 현장에서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올 1월 지인 스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을 센터장으로 CPE센터를 개소하고 3월 7일부터 첫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명상과 불학적 심리적 고찰, 상실감 성찰기, 임상강의, 사례중심 교육, 그룹세미나, 중간평가와 워크샵 등으로 진행됐다. 매주 1회 교육이지만 지인 스님을 비롯한 수퍼바이저들이 구성한 교육과정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이어지는데다가, 세미나 자료와 과제물까지 추가로 제출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병원포교의 안목을 넓히고 정신적 환자 돌봄을 위한 전문성을 증장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켜 보다 성숙한 영적돌봄이 가능토록 이끌기 위함이다.

가장 핵심적인 강의로 꼽힌 것은 임상강의다.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영적돌봄(지인 스님)' 을 시작으로 '환자의 총체적 고통과 호스피스 이해(김달용 교수)', '영적진단 영적돌봄(지인 스님)' '영적돌봄가의 역할과 자세(최봉수 교수)' '타종교인을 위한 영적돌봄(지인 스님)' 등 다양한 분야의 깊이 있는 강의로 진행돼 호응이 높았다.

한편 CPE센터는 9월부터 2기 교육을 시작한다. 2기 교육은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국비구니회 CPE센터 대면교육을 유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스님의 경우 교육비 50%가 할인되며 수료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30점이 인정된다. 영적돌봄 교육에 관심있는 스님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관련 직업 종사자는 물론,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3411-8103

10.27법난 41주년 문화로 기린다

조계종, 문예 · 추념곡 공모
9월 1일까지 시 · 산문 접수
추념곡은 작사 · 곡 두 부문

10.27법난 41주년을 시와 소설, 음악으로 기린다. 10.27법난은 1980년 국가권력에 의해 전국 사찰이 유린당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한 사건으로, 근현대 최대규모의 불교 탄압사로 기록됐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원경)는 10.27법난 41주년을 맞아 전국승려문예공모전과 추념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10.27법난의 진실을 알려 평화정신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법난 피해로 인한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승려문예공모전은 학인스님을 포함한 전국 스님들을 대상으로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시와 산문 두 부문이며, 주제는 10.27법난의 진실, 파사련정, 유구한 역사의 한국불교. 종교적 평화정신 고취,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제시된다.

대상은 시와 산문 각 1편씩이며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부문별 2편(상금 100만원), 장려상은 부문편 5편(상금 50만원) 선정할 예정이다. 02)730-4489

10.27법난 추념곡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단체에게도 참여자격이 주어진다. 작사 부문은 7월 25일까지, 작곡 부문은 7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작곡부문은 10.27법난 기념법회 및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4분 내외 곡으로, 홈페이지에 음원과 악보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상은 1인 500만원, 우수상은 2인 각 100만원이 상금으로 수여된다. 작사 부문은 10.27법난의 역사적 사실을 담거나 화해와 상생을 통해 종교적 평화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랫말로, 1 · 2절과 후렴을 포함해 3분 이상 분량이다. 제목과 가사 내용을 한글 문서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인 200만원, 우수상 2인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 발표는 작사부문 7월 29일, 작곡부문 9월 27일 10.29 추념곡 공모전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02)705-5334 송지희 기자

조계종 민추본, 평화통일아카데미 개최

8월 13일까지 사전 접수
온라인 강좌 동시 진행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반도를 평화와 상생으로 이끌기 위한 강좌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는 8월 28~29일 '공존 · 상생 · 합심의 평화통일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평화통일아카데미는 온 ·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9월 4일 강원도 고성 남북접경지역 현장순례도 운영한다. 이에 8월 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민추본은 "이번 아카데미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북인식을 전환하고 통일의식을 확대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미래 인재와 불교계 대북 통일역량을 키우고자 기획됐다"며 "특히 북에 대한 왜곡과 편견의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력, 신뢰의 대상으로서의 대북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카데미는 8월 28일과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4개 강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로 현장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첫 강의는 8월 28일 오후 2시 김진환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오후 4시에는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북한 경제 분야 조직변화의 특징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다음날인 8월 29일 오후 2시에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의 외교전략 및 대남전략'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는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북한 문화예술 및 사회문화 교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다.

강원도 고성 남북접경지역 현장순례는 9월 4일 조계사 앞에서 오전 7시 출발해 고성 화진포, 대진항(자율 중식), 고성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등을 탐방하는 일정이다. 이창희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동행해 고성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해설과 남북 분단문제에 대한 현장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국고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로, 민추본 후원회원으로 멤버십 가입을 한 후 참가비 없이 신청 가능하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손원영 교수 복직 촉구

종자연, 입장문 발표

개신교인에 의한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불교계에 사과하고 복구모금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서울기독대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소(이하 종자연)는 7월 7일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부당함이 명확해진 만큼 학교측은 손원영 교수의 복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어서는 안되며 극성 개신교인의 그릇된 신앙표현으로 벌어진 법당훼손은 반사회적인 범죄 이외의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 개신교 신앙인의 행위가 교단으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달빛내륙철도 확정에 '해인사역' 유치 여론 확산

거창군 · 해인사역유치위
"환승역으로서 최적조건"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반영을 결정하면서, 이와 연계한 남부내륙철도의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게 일고 있다. 거창군과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위원회'가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합천해인사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위원회' (이하 유치위)는 7월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달빛내륙철도' 반영에 따른 환영의 입장과 함께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촉구했다.

유치위는 "KTX합천해인사역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문화관광적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달빛 내륙철도의 환승역으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환승역으로 KTX합천해인사역 설치될 경우 여러 강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유치위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가야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은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교차 되는 합천해인사(환승)역이 설치됨으로써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KTX합천해인사역은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지나는 1000만명 인구가 사는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 사통팔달 대통합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가야산과 덕유산, 지리산 3곳의 국립공원을 수도권과 중부권 국민들이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거창군도 6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남부내륙철도 합천 해인사 역사 유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거창군은 "남부내륙철도 합천 해인사역사유치는 순환 철도망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연하다"며 "영호남 6개 광역 시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 거창군은 남부내륙철도 해인사 역사 유치를 위해 온 군민들이 합심해 역사유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